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Characteristics Upon School Readiness

최지현(Ji-Hyun Choi)¹⁾

박혜원(Hyewon Park Choi)²⁾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child characteristics and school readiness. In particular, it examined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and child characteristics upon children's school readiness with a focus on attitudes towards and other socio-emotional aspects. 57 children's characteristics, including such items as IQ performance and demographic variables were obtained by means of both individual testing of the child and through a questionnaire given to their parents. Relative levels of school readiness were then rated by teachers. Pearson correlation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PSS Win 12.0 program. Our results indicated that (1) school readines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mother's job, HOME, the ages of the children, Performance IQ, and Total IQ. (2) The level of the other's education, her job and the child's age was found to significantly predict the level of school readiness.

Key Words : 가정환경(home environment), 아동 특성(child characteristics), 학습 준비도(school readiness).

I. 서 론

취학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성공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무엇인지는 취

학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초기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로 정의할 수 있는 취학전 아동의 학습 준비도는 학습부진아의 조기발견과 부족한 기능

¹⁾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²⁾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Park Choi,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San 29 Mugeo-Dong, Nam-Gu, Ulsan 680-740, Korea
E-mail : hyewonc@ulsan.ac.kr

영역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특히 초기학습에서의 성공이 후기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기 학습수행을 위한 학습준비도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정계숙, 1988).

Gredler(1997)는 유아용 능력검사 도구를 발달/선별 검사와 준비도 검사 두 가지로 구별하였는데, 발달/선별 검사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아동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이며, 준비도 검사는 획득된 기술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습준비도 검사를 개발해 온 Bracken과 그의 동료들은 “원리를 깨치는 기술이 학교 과제에서의 성공을 예언한다”(p.99)고 보고하여 학습준비도의 유용성을 주장하였다(Panter & Bracken, 2009).

이러한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가정환경이며 가정환경 변인이 학습준비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일찍이 19세기말 Galton의 연구(정계숙, 1986, 재인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가족의 직업이 다른 아동들 간에 Binet-Simon 검사로 측정된 지적 능력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는데(Decroly & Degrand, 정계숙, 1986, 재인용) 이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관한 증거는 놀랄 만큼 축적되었다(Hess & Holloway, 1984).

최근 446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Forget-Dubois, Dionne, Lemelin, Perusse, Tremblay, & Boivin, 2009)에서도 가정환경의 질은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언어발달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유전보다는 환경이 더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해석되었다. Nievar, Jacobson과 Dier(2008)의 연구에

서도 가정환경자극검사(HOME)가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를 예언한다고 하였다. 가정환경뿐 아니라 아동의 다른 교육환경도 중요하여 Dearing, McCartney와 Taylor(2009)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에 질 높은 양육을 받은 아동은 저소득층일 지라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 연구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윤명희, 1995; 이연섭·김성일·단현국, 1979, 1980; 이연섭·김성일, 1981; 하대현, 1983), 이러한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김은경, 1988; 정계숙, 1979, 1986, 1988; 하영례, 1985). 정계숙(198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 가정환경 자극이 학습준비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계숙(1988)은 가정의 놀이자료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상관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하여 구체적인 가정환경의 특성도 밝히고 있다. 하영례(1985)는 사회계층별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중류층이 상류층이나 하류층보다 학습준비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류층이 교육을 사회적 계층 상승 이동의 수단으로 받아들여 어린 아동에서부터 주입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가정환경 외에 심리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김은경(1988)은 어머니의 학력보다는 아버지의 학력, 그리고 보호자의 직업이 전문직일 경우 아동의 읽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부모의 특성이나 기타 조기교육과 같은 교육환경보다는 아동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준비도의 발달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아동 개인 변인과 학습준비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계숙(1986)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성별은 여아일 때 학습준비도 점수가 높다고 하였고, 아동의 형제순위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에 영향을 주어 학습준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cBryde, Ziviani와 Cuskelly(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학습능력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의 학습준비도에 관한 연구(최옥희, 2001)에서는 학습능력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습능력 수준이 낮은 아동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인지적 특성이 학습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란(1998)은 유아의 읽기·쓰기 능력에 따라 학습준비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유아의 문자 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읽기·쓰기 능력이 가장 높은 유아가 가장 높은 학습준비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영희(1985)는 수 개념 발달과 학습준비도 및 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수개념 발달과 학습준비도간에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학습준비도와 지능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체로 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습준비도 점수도 높았다. 또한 수개념 발달과 학습준비도 및 지능의 발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학습준비도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학습준비도 검사 도구 개발에 치중되어 있고, 기존의 학습준비도 검사는 현재 아동이 할 수 있는 교과지식적인 능력을 검사하는 수준이었다. 학습준비도를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학습에 대한 태도적 측면이나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특히 이러한

정의적 측면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적 측면이나 사회·정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환경 변인(부모 학력, 부모 연령, 부모 직업, 가정환경자극검사(HOME)과 학습준비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 개인특성(성별, 연령, 출생순위, 동작성 IQ, 언어성 IQ, 전체 IQ)과 학습준비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보육시설 2개소(국·공립, 직장)와 유치원 1개소의 만 4-5세 아동 총 57명(남아 : 36명, 여아 : 21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각 아동들의 담임교사이다. 조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조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아버지	교육 수준	고졸	29(50.9)
		전문대졸	11(19.3)
		대졸	16(28.1)
		대학원졸	1(1.8)
	계	57(100.0)	
연령	35세 미만	18(31.6)	
	36-40세 미만	23(40.3)	
	41-45세 미만	14(24.6)	
	46세 이상	2(3.5)	
	계	57(100.0)	
직업	사무직	24(42.1)	
	비사무직	33(57.9)	
	계	57(100.0)	
어머니	교육 수준	고졸	34(59.6)
		전문대졸	11(19.3)
		대졸	11(19.3)
		대학원졸	1(1.8)
	계	57(100.0)	
	연령	25-30세 미만	3(5.3)
		31-35세 미만	28(49.1)
		36-40세 미만	20(35.1)
		41세 이상	6(10.5)
	계	57(100.0)	
직업	사무직	8(14.0)	
	비사무직	26(45.6)	
	기타(주부)	23(40.4)	
계	57(100.0)		

<표 2>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성별	남아	36(63.2)
	여아	21(36.8)
	계	57(100.0)
연령	만 4세	28(49.1)
	만 5세	29(50.9)
	계	57(100.0)
출생 순위	첫째	33(57.9)
	둘째	21(36.8)
	셋째	3(5.3)
	계	57(100.0)
아동의 지능	평균하(IQ85 이하)	21(36.8)
	평균(IQ86-115)	36(63.2)
	계	57(100.0)

2. 연구도구

1) 부모의 직업군 분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문명순(2006)이 사용한 사회계층 분류 척도(1 : 자본가, 정부 고위관리 2 : 고위전문직 3 : 하위전문직, 일반회사의 사무직 4 : 자영상인 및 자영서비스업자 5 : 자영기능인 6 : 서비스직 종사자, 숙련공 7 : 단순노무자, 분류불능 및 실직자 등)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서 직업군을 크게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분류한 이유는 연구대상 아동이 속해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부모 대부분이 고졸 생산직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부모 대부분이 대졸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 외 어머니가 주부인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통계처리에서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 가정환경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환경 측정도구는 3세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둔 부모용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를 이선주(2006)가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정환경자극검사는 9가지 하위변인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학습준비도와 연관성이 있는 하위변인 6가지(발달을 위한 자극, 독립성의 육성, 경험의 다양성, 놀이자료,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언어적 환경) 총 55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예'와 '아니오'로 측정되고, '예'인 경우에는 1점, '아니오'인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

사는 Cronbach α 계수 .80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3) 지능검사 측정도구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박혜원·곽금주와 박광배(1996)의 K-WPPSI(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K-WPPSI는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만 3세부터 7세 3개월된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동작성 소검사 6개(모양맞추기, 도형, 토막짜기, 미로, 빠진곳 찾기, 동물 짝짓기)와 언어성 소검사 6개(상식, 이해, 산수, 어휘, 공통성, 문장)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보충검사(동물 짝짓기, 문장)는 실시하지 않았다.

검사의 실시는 K-WPPSI 검사자 자격증을 소지한 2명의 보육교사가 각 원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었다.

4) 학습준비도 측정도구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urphey와 Burns(2002)의 학습준비도 체크리스트를 본 연구자가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정서(예: 또래 아이들과 잘 놀 수 있다), 학습에 대한 태도(예: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의사소통(예: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인지발달(예: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신체적 건강과 안녕(예: 자조기술(화장실 가기, 코 닦기, 손 씻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으로 전체 5개 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alpha=.91$ 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도 체크리스트는 해당 아동의 담임교사가 평정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Murphey와 Burns(2002)의 학습준비도를 본 연구자가 번역 수정한 후 문항신뢰도와 문항 중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10일~20일에 본 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2개 직장보육시설의 만 4-5세 담임교사에게 각각 20명의 아동, 총 40명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준비도 체크리스트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6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체크리스트 마지막 문항인 24번의 경우 결측값이 많아 24-1, 24-2, 24-3, 24-4로 구분하여 각 문항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08년 4월~6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K-WPPSI(한국 웨슬러 유아용 지능검사) 검사자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 2명이 개별적으로 K-WPPSI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각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고, 순서는 무선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습준비도 체크리스트는 각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평소 아동을 관찰한 내용을 기초로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외 가정환경자극검사(HOME)는 대상 아동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12.0 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 개인특성이 학습준비도와 어떠한 관련을 맺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 개인특성 중 어떠한 변인이 만 4-5세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과 학습준비도간의 관계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과 학습준비도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준비도는 가정환경 변인 중 어머니 직업($r=-.28, p<.05$), 가정환경자극검사(HOME)($r=.27, p<.05$)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도 5가지 하위 영역들로 나누어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정서는 어머니

학력($r=-.22, p<.05$), 어머니 연령($r=-.22, p<.05$)과 학습에 대한 태도는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r=.22, p<.05$)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의사소통과 인지발달은 각각 어머니 직업($r=-.31, p<.01$; $r=-.32, p<.01$),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r=.23, p<.05$; $r=.28, p<.05$)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아동 개인특성과 학습준비도의 상관을 보면 학습준비도는 아동의 연령($r=.36, p<.01$), 동작성 IQ($r=.37, p<.01$) 및 전체 IQ ($r=.38,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 개인특성과 학습준비도 하위 영역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정서는 연령($r=.34, p<.01$), 동작성 IQ($r=.36, p<.01$), 언어성 IQ($r=.28, p<.01$) 및 전체 IQ($r=.39, p<.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학습에 대한 태도는 동작성 IQ($r=.38, p<.01$), 언어성 IQ($r=.33, p<.05$) 및 전체 IQ($r=.43,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의사소통은 연령 ($r=.28, p<.05$), 인지발달은 연령($r=.49, p<.001$), 동작성 IQ($r=.33, p<.05$) 그리고 전체 IQ($r=.29,$

<표 3> 가정환경 변인과 학습준비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부학력	1.00												
2. 부연령	.23*	1.00											
3. 부직업	-.80***	-.25*	1.00										
4. 모학력	.77***	.33**	-.62***	1.00									
5. 모연령	.36**	.75***	-.36**	.36**	1.00								
6. 모직업	-.05	-.05	-.01	-.14	-.17	1.00							
7. HOME	.30*	.02	-.23*	.40**	.08	-.07	1.00						
8. 사회정서	-.16	-.19	.16	-.22*	-.22*	-.18	.20	1.00					
9. 학습에 대한태도	-.10	-.11	.21	-.19	-.11	-.20	.22*	.79***	1.00				
10. 의사소통	-.06	-.05	.06	-.14	-.04	-.31**	.23*	.59***	.63***	1.00			
11. 인지발달	-.06	-.06	.09	-.09	-.05	-.32**	.28*	.65***	.72***	.74***	1.00		
12. 신체적 건강과 안녕	-.07	-.03	-.04	-.06	.09	-.11	.07	-.13	-.08	.23*	.32**	1.00	
13. 학습준비도총점	-.12	-.13	.16	-.19	-.12	-.28*	.27*	.87***	.92***	.79***	.89***	.15	1.00

* $p<.05$ ** $p<.01$ *** $p<.001$

<표 4> 아동 개인특성과 학습준비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별	1.00											
2. 연령	1.96	1.00										
3. 출생순위	-.13	-.03	1.00									
4. 동작성IQ	.05	.14	-.19	1.00								
5. 언어성IQ	-.04	-.21	-.25	.39**	1.00							
6. 전체IQ	.00	-.03	-.26	.83***	.83***	1.00						
7. 사회정서	-.20	.34**	-.12	.36**	.28*	.39**	1.00					
8. 학습에 대한태도	-.20	.20	-.09	.38**	.33*	.43**	.79***	1.00				
9. 의사소통	-.20	.28*	-.02	.12	.01	.08	.59***	.63***	1.00			
10. 인지발달	-.26	.49***	-.21	.33*	.15	.29*	.65***	.72***	.74***	1.00		
11. 신체적 건강과 안녕	-.07	.09	-.03	.04	-.03	-.01	-.13	-.08	.23	.32*	1.00	
12. 학습준비도총점	-.25	.36**	-.14	.37**	.26	.38**	.86***	.92***	.79***	.89***	.15	1.00

* $p < .05$ ** $p < .01$ *** $p < .001$

$p < .05$)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2.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 변인이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 개인특성 모두를 독립변수, 학습준비도 하위 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면 학습준비도에는 가정환경 변

<표 5>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에 따른 학습준비도 중다회귀분석

(Method=stepwise)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2	ΔR	F
사회정서 ($N=57$)	어머니직업	-.54	-.26*	.61	.47	4.60***
	연령	.18	.45***			
학습에 대한 태도 ($N=57$)	어머니학력	-1.14	-.46*	.54	.38	3.46**
	어머니직업	-.80	-.26*			
	연령	.15	.27*			
인지발달 ($N=57$)	어머니직업	-.58	-.29**	.62	.50	4.95***
	성별	-1.50	-.26*			
	연령	.19	.50***			
전체 학습준비도 ($N=57$)	어머니학력	-2.25	-.38*	.62	.49	4.79***
	어머니직업	-2.30	-.32**			
	연령	.57	.41**			

* $p < .05$ ** $p < .01$ *** $p < .001$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인 중 어머니 학력($\beta=-.38, p<.05$)과 어머니 직업($\beta=-.32, p<.01$), 아동 개인 특성 중 연령($\beta=.41, p<.01$)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전체 변량의 62%를 설명하였다. 학습준비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았을 때 의사소통과 신체적 건강과 안녕을 제외한 3가지 영역이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사회정서와 관련하여 어머니 직업($\beta=-.26, p<.05$)과 연령($\beta=.45, p<.001$)이 유의하여 61%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는 어머니 학력($\beta=-.46, p<.05$), 어머니 직업($\beta=-.26, p<.05$) 그리고 연령($\beta=.27, p<.05$)이 유의한 설명력(54%)을 지녔다.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 직업($\beta=-.29, p<.01$), 성별($\beta=-.26, p<.05$) 및 연령($\beta=.50, p<.001$)이 영향(62%)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울산광역시에 있는 만 4-5세 아동 57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동의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별검사, 설문조사, 평정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 변인(부모 학력, 부모 연령, 부모 직업, 가정환경자극검사(HOME))과 학습준비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학습준비도는 어머니 직업,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그리고 가정에서 다양한 놀이 자극이 많이 주어질수록 학습준비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환경과 학습준비도간의 상관을 보고해 온 선행연구들(정계숙, 1986, 1988; 하

영래, 1985)과 일치한다.

학습준비도 5가지 하위 영역 중 특히 의사소통(예 :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과 인지발달(예 :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이 어머니 직업, 가정환경자극검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태도적, 사회-정서적 측면을 보는 학습준비도에서도 어머니 직업이나 가정환경이 아동의 인지능력발달과 많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준비도 하위 영역 중 사회정서는 어머니 학력, 어머니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아동의 학습에 대한 사회정서적인 면(예 :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에서는 학력이 낮고 연령이 낮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점은 뒤에서 영향요인을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겠다. 학습에 대한 태도는 가정환경자극검사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가정환경이 아동의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적절히 자극해 주는 환경일 때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상관이 높다는 연구(정계숙, 1988; Forget-Dubois 등, 2009; Nievar 등, 2008) 결과들과 일치한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지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공존하고 있다. 정계숙(1986)은 어머니 교육수준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 또 김은경(1988)도 어머니 학력보다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읽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나 직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학력이나 연령, 직업만이 아동

의 학습준비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에 따라 아동의 읽기·쓰기 능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이명란(1998)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준비도 측정 도구가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한 학습준비도 검사 도구와는 다른 학습에 대한 사회-정서적 측면을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동 개인특성(성별, 연령, 출생순위, 동작성 IQ, 언어성 IQ, 전체 IQ)과 학습준비도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학습준비도는 연령, 동작성 IQ 및 전체 IQ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연령과 지능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번안한 학습준비도 체크리스트로 측정한 Murphey와 Burns(2002)의 연구에서 학습준비도는 유아의 발달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 학습준비도가 아동의 동작성 IQ, 전체 IQ와 상관있다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또 최옥희(2001)의 연구에서도 학습능력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습능력 수준이 낮은 아동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인지적 특성이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영희(1985)도 학습준비도와 지능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도 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아동의 지능이 높을수록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학습준비도 총점은 언어성 IQ보다는 동작성 IQ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echsler 지능검사의 해석방법에 따르면(박혜원 등, 1996), 동작성 IQ가 언어성 IQ에 비해 감각 운동적 요소, 그리고 정의(불안 등)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준비도 체크리스트가 교과지식의 축적 정도의 측정보다는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나 보다 정의적인 측면을 측정한 도구이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성차분석결과 남아보다는 여아가 학습준비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선행연구(이명란, 1998; 정계숙, 1986; McBryde 등, 2004)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은 학습준비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6세가 되면서 5세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학습준비도 점수를 획득한다고 나타난 정계숙(1986)과 McBryde 등(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정계숙(1986)은 아동의 형제순위는 가정환경자극에 영향을 주어 학습준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형제순위가 높을수록, 즉 첫째일수록 가정환경자극이 풍부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출생순위는 학습준비도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 요인이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어머니 학력, 어머니 직업, 아동의 연령이 학습준비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전문직일수록,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는 높았다. 특히 어머니 학력은 학습준비도 하위 영역 중 학습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종일반 보육시설에 다니고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중심(약 60%)으로 낮았던 것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어머니없이 성장했을지라도 대리 양육의 질이 높다면(1) 언어 자극 수준이 높고, (2) 발달적으로 적절한 학습 도구가 있고, (3)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와 긍정적인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4)

아동이 자신의 환경을 탐색할 기회를 가질 때 적절한 발달을 자극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주장(McCartney, 1984;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Dearing, McCartney, & Taylor, 2009, 재인용)과 연관시켜 볼 때 비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지라도 아동의 학습에 대한 사회정서적인 면(예 :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에서는 어머니 특성 외 질 높은 보육시설내 양육환경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장영애(1987)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자극이고, 이러한 적절한 자극이 다시 가정내의 간접적 자극과 가정 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변인은 다시 가정경제 수준과 부모교육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부모교육 수준과 아동 능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했다. 본 연구 대상이 울산시내에서 생산직 근로직에 근무하는 고졸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의 자녀였기에(59%) 자녀의 학습에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낮은 학력이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영례(1985)도 중류층이나 하류층보다 학습준비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울산지역의 고졸이하 학부형의 경우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한다. 끝으로 연령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학습준비도가 교과지식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든 태도적, 사회-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든 연령이 높아지면서 아동의 학습준비도 능력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학습준비도 연구들이 교과 지식적 내용을 측정된 것과는 달리 학습에 대한 태도적, 사회-정서적 측면을 중심으로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정의적 측면의 학습준비도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에 있어 울산지역의 보육시설 2개소(국·공립, 직장)와 유치원 1개소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직장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등)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의 경우 과거 1980년대의 검사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여 오늘날 아동의 가정환경에 맞지 않는 문항들(예 : 아동용 레코드판(혹은 노래 테이프)이 5개 이상 있습니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체크할 수 있는 가정환경자극검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 개인특성에서 인구학적인 변수 외 아동이 그동안 받아왔던 보육시설 외 교육 경험 등이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외 다른 교육 경험에 따라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은경(1988). 아동의 읽기능력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이해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명순(2006).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참여경험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 곽금주 · 박광배(1996). **K-WPPSI 지침서**. 특수교육.
- 윤명희(1995). 유아 학습준비도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3(5).
- 이명란(1998). 유아의 읽기 · 쓰기 능력과 학습준비도 간의 관계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주(2006).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가정환경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섭 · 김성일 · 단현국(1979).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 86집.
- 이연섭 · 김성일 · 단현국(1980).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 114집.
- 이연섭 · 김성일(1981).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연구(III) : 학습준비도 검사의 예비적 타당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134집.
- 이영희(1985). 아동의 수개념 발달과 학습준비도 및 지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1987). 가정환경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 인과 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8(2), 17-44.
- 정계숙(1979). 가정환경변인과 학령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1986).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일 연구. **사대논문집**, 13, 109-127.
- 정계숙(1988).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성취동기, 가정 및 지역환경과의 관계(I). **사대논문집**, 17, 163-183.
- 최옥희(2001). 학습능력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의 학습준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대현(1983). 학습준비성 검사의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례(1985). 사회계층별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학습준비도 검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aring, E., McCartney, K., & Taylor, B. (2009). Does higher quality early child care promote low-income children's math and reading achievement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80(5), 1329-1349.
- Forget-Dubois, N., Dionne, G., Lemelin, J., Perusse, D., Tremblay, R., & Boivin, M. (2009). Early child language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Child Development*, 80(3), 736-749.
- Gredler, R. (1997). Issues in early childhood screening and assessment. *Psychology in the Schools*, 34, 99-106.
- McBryde, C., Ziviani, J., & Cuskelly, M. (2004). School readiness and factors that influence decision making.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11(4), 193-208.
- McCartney, K. (1984). Effects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260.
- Murphey, D., & Burns, C.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2-13.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The relation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 960-980.
- Nievar, A., Jacobson, A., & Dier, S. (2008). Home visiting for at-risk preschoolers : A successful model for latino families. Unpublished manuscript

**(Accepted for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anter, J., & Bracken, B. (2009). Validity of the Bracken

School Readiness Assessment for predicting first
grade readiness. *Psychology in the Schools*,
46(5), 397-409.

2009년 8월 31일 투고, 2009년 11월 9일 수정
2010년 1월 7일 채택